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대학원 교육과정 국제 비교 연구

- 미국과 유럽 표준에 비추어본 한국 대학원 교육과정의 교과목 분석 -

강 충 열

한국교원대학교

영재교육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영재교육 전문가의 수와 질적 수준이다. 영재교육 전문가란 학급에서 영재를 직접 지도하는 학급교사에서, 보다 넓은 수준에서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조정하는 코디네이터와 영재교육 담당교사 또는 일반교육 담당교사들에게 전문적 조언을 해줄 자문가 등 그 역할에 따라 다양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이후, 현직연수를 통해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수는 많아 졌으나, 앞으로는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해 보다 질 높은 전문성을 지닌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다수 양성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런 맥락에서 한국에서도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과정을 개설하는 대학들이 늘어났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이 전공 과정들의 교육과정은 양성되는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을 담보할 수 있을 정도로 잘 구성되어 있는가이다. 본 연구는 이런 문제 의식에 기초해서, 한국의 8개 대학에서 제공하고 있는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과정의 교육과정을 미국과 유럽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표준에 비추어 분석하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 조사한 한국의 8개 대학들은 대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표준에서 공통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인 “영재성의 개념 및 발달”, “영재교육과정 개발”, “영재교수법”에 교과목들을 주로 개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가 달라 이 표준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학교 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그 외의 표준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서도 학교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는 이런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한국의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공의 발전을 위해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주제어: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 전공

교신저자: 강충열(kangcy@knu.ac.kr)

* 이 논문은 한국교원대학교 2008년도 기성회계 지원을 받은 논문임.

I. 서 론

교육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교실에서의 모습을 살펴 볼 때, 핵심이 되는 두 요소는 교사와 학생이다. 이에 따라 미시적 관점에서 교육의 발전이라는 주제는 이 두 요소 간의 상호작용의 질을 높이는 일에 관심을 두게 되는데, 이 상호 작용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보다 근본적인 요소는 교사이다. 왜냐하면 학생이 이 상호작용을 통해 얻는 학습 경험의 질은 대부분 교사가 그 상호작용을 어떻게 이끄느냐에 달려있지, 그 반대의 경우는 매우 드물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교육의 질은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교사교육 학자들의 주장을 금언처럼 수용하는 것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갈 수 있는 일이다.

영재들은 그들의 높은 감수성으로 인해 일반 학생들보다 교사로부터 더 큰 영향을 받는다(Croft, 2003). Nelson & Cleland(1971: 439)도 “영재들의 자신감을 고취하거나 파괴하는 사람, 흥미를 격려하거나 억누르는 사람,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무시하는 사람, 창의성을 육성하거나 쫓아내는 사람, 비판적 사고를 자극하거나 억제하는 사람, 성취를 촉진시키거나 좌절시키는 사람, 그 모두를 조성하는 환경을 만드는 사람은 교사”라고 주장하며 영재들에게 있어 교사의 중요성을 지적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여러 학자들이 (Reis & Westberg, 1994; Whitton, 1997; Wellisch, 1997; Roberts, 2008) 과거 영재교육이 미흡했던 주요 이유 중의 하나로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능력 부족을 들고 있는 것 또한 이해가 갈 수 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영재교육 담당 교사들의 능력 부족은 전문적 연수를 통해 극복될 수 있으며, 특히 대학원 수준에서의 연수는 매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Parker & Karnes, 1991; Hansen & Feldhusen, 1994; Croft, 2003; Graffam, 2006). 연수는 연수자가 연수를 받은 후 하는 일의 성격에 따라 수준이 다를 수 있다. 영재교육의 경우, Dettmer & Landrum (1998)은 현직 연수(In-service training)와 간부진 개발(staff development)로 나누는데, 전자는 주로 학급에서 영재를 지도할 교사를, 후자는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영재교육 프로그램을 관장하는 지역교육청의 관계자나 기타 영재교육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Moon & Rosselli(2000)도 일반 학급에서 영재 교육을 시도하는 나라에서는 전직 교

사 연수 프로그램(pre-service teacher education program)을 통해 코스워크를 받는 것이 바람직하고, 특별학교에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영재교육을 실시하는 나라에서는 대학원 과정을 통해 영재교육학과 자신의 학문 영역에서의 과정을 이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연수의 수준을 구분한다. 우리나라도 영재교육진흥법 제정 후 전직 교사연수를 위해 영재교육 관련 교과목을 개설한 대학들이 늘어났고, 현직 연수를 통해 많은 교사들이 일반학교에서 영재교육을 담당하고 있다.

그러나 짧은 기간의 전·현직 연수보다는 대학원 수준의 교육이 영재교육에 대해 보다 높은 전문성을 담보하는데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Gross, 1997), 이제는 특별학교나 일선학교에서 영재교육을 실시하거나, 시·도 교육청과 같이 보다 넓은 수준에서 영재교육을 자문하고 모니터하고 총괄할 수 있는 전문가들을 양성하기 위해 대학원 수준에서의 교육에 힘을 쏟아야 할 때가 되었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영재교육의 연구와 교육에 있어 선진국인 미국과 유럽이 대학원 수준의 전문가 양성 표준으로 제시한 미국 특수교육협의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와 미국 영재교육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의 CEC-NAGC 표준과 유럽영재교육협의회(European Council for High Ability)의 ECHA 표준에 비추어 한국 대학원 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 과정의 교육과정들을 비교함으로써, 영재교육 발전에 핵심이 되는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대학원 수준에서 양성하는데 필요한 교육과정의 발전 방향에 대해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II.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전공 교육과정

온라인을 통해 한국의 대학원 과정에서 영재교육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대학의 교육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경우를 조사한 결과, 대구대학교, 건국대학교, 순천향대학교, 춘천교육대학교, 청주교육대학교, 인천대학교, 고려대학교, 경원대학교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 대학들이 제공하고 있는 코스의 교과목은 다음과 같다.

대구대학교(D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연구법, 심리검사, 지능과 영재교육, 영재 판별, 영재아 발달심리학, 창의성과 영재교육, 창의성 교육의 실제,

사고력 교육, 영재교육과정, 영재교육방법과 자료 개발, 전교심화학습 모형, 영재 상담 및 진로지도, 특수영재교육, 영재 교사 및 부모 교육, 유아 영재교육, 영재교육 평가, 영재교육 통계, 영재교육연구 세미나,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연구,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예체능 영재교육, 컴퓨터 영재교육론, 비교 영재교육, 영재교육의 최근 동향, 영재교육 심리 세미나, 세계화 시대의 영재교육, 개별연구 지도를 개설하고 있다(<http://edugrad.daegu.ac.kr/>).

건국대학교(K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개론,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영재판별, 영재교육과정,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창의성과 영재교육, 수학/과학 영재교육론, 인문사회 영재교육론, 예체능 영재교육론,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연구, 영재교육 평가, 영재상담 및 진로 지도, 영재교육연구 방법 1, 영재교육연구 방법 2, 사고력 향상을 위한 교수법, 영재교육세미나, 영재교육실습 1, 영재교육실습 2, 영재교육실습 3, 영재교육실습 4, 영재교육실습 5, 원격영재교육, 특수영재교육, 영재 판별 및 평가를 개설하고 있다(http://sedu.konkuk.ac.kr/2008n/curri/curri3_1_6.htm).

순천향대학교(S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학개론, 영재판별방법론, 창의성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사고력 이론 및 프로그램 개발, 현장연구, 논문지도 1(혹은 중급현장연구지도), 논문지도 2(혹은 고급현장연구지도), 현대지능이론, 영재아발달이론, 영재교육과정론, 영재교육실습, 수학/과학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인문(언어)/사회 영재교육 프로그램 개발, 영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영재교육연구 방법론, 영재교육세미나, 특수영재지도를 개설하고 있다(<http://www.sch.ac.kr/gradu/index.jsp?menuID=20071010104424690292>).

춘천교육대학교(CC대)는 교과목으로 초등영재교육과정론,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초등 영재 판별법, 영재교육 연구방법론, 영재교육세미나,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창의성과 영재교육, 과학 영재교육론, 수학 영재교육론, 정보 영재교육론, 과학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수학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정보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과학 영재교육 특론, 수학 영재교육 특론, 정보 영재교육 특론, 인문·사회과학 영재교육론, 인문·사회과학 영재교육을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예체능 영재교육론, 예체능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을 개설하고 있다(http://sukwoo2.cnu.ac.kr/graduate/sub02_1803.htm).

청주교육대학교(CJ대)는 교과목으로 초등교육문제 탐구, 영재교육개론, 과학영재 판별 및 평가, 과학영재교육연구 방법, 과학의 본성과 역사, 과학영재탐구지도, 영재의 발달 및 영재 상담, 영재교육행정 및 영재학급 운영, 과학영재교재 개발 및 교수법, 과학영재교육실습 1, 과학영재교육실습 2, 과학영재교육세미나, 개인연구를 개설하고 있다(<http://www.cje.ac.kr/cjg/>).

인천대학교(IC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론, 창의성과 영재교육, 영재의 특성 이해와 영재아 판별, 영재 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영재 교수/학습 및 평가, 영재교육 실습, 영재교육 연구 방법, 영재아 상담, 영재교육 세미나, 수학영재 교육론, 과학영재 교육론, 예술영재 교육론, 인문 사회 및 언어영재 교육론, 사이버 영재교육 방법론, 문제 중심 학습의 이론과 실제, 상위사고력의 이해와 개발,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연구, 특수영재 교육, 영재아 사회·정서 발달, 영재교육 통계 특강, 영재아 사례 연구,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견, 영재교육 개별 연구, 연구 설계와 연구 계획서 작성을 개설하고 있다(<http://dept.incheon.ac.kr/eduwon/course.htm>).

고려대학교(KR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개론, 영재교육과정, 논문지도 I, II,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영재 판별, 영재교육 평가, 영재 상담 및 진로지도, 영재교육 실습, 원격 영재교육, 특수 영재교육, 수학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국어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영어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음악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수학영재교육론, 국어영재교육론, 영어영재교육론, 음악영재교육론, 수학영재교육세미나, 국어영재교육세미나, 영어영재교육세미나, 음악영재교육세미나, 영재교육연구방법론 I, II를 개설하고 있다(http://www.korea.ac.kr/edugrad_jsp/).

경원대학교(KW대)는 교과목으로 영재교육개론, 창의성과 영재교육, 영재 판별 및 발달 특성, 영재교육세미나,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영재교육 연구 방법, 영재교육 실습, 영재교육 프로그램, 영재교육 평가, 사고력 이론과 실제, 영재교육 교재개발 및 교수법,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 인문사회 영재교육, 언어영재교육, 사이버영재교육,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연구를 개설하고 있다(<http://www.kyungwon.ac.kr/kusc/>).

이들 대학들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을 상호 비교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 표 1 >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전공 교과목/주제명 비교표

교과목/주제명	D대	K대	S대	CC대	CJ대	IC대	KR대	KW대
영재교육개론		○	○		○	○	○	○
지능과 영재교육	○		○					
영재의 발달심리	○	○	○	○	○	○	○	○
영재교육/심리 세미나	○	○	○	○		○	○	○
영재 판별	○	○	○	○		○	○	○
심리검사	○							
창의성과 영재교육	○	○		○		○		○
창의성 교육	○		○			○		
사고력 교육	○	○	○			○		○
문제중심 학습 이론과 실제	○	○	○			○		
영재교육과정/프로그램	○	○	○	○		○	○	○
영재교수법/자료 개발	○	○		○		○	○	○
전교심화학습 모형	○							
영재교육 평가	○	○				○	○	○
영재 상담 및 진로지도	○	○	○		○	○	○	○
특수영재교육	○	○	○			○	○	
유아 영재교육	○							
수학영재교육	○	○	○	○		○	○	○
과학영재교육	○	○	○	○		○		○
언어/인문/사회영재교육		○	○	○		○	○	○
예체능 영재교육	○	○		○		○	○	○
컴퓨터/정보 영재교육론	○			○				
과학영재 판별 및 평가					○			
과학영재 교육 연구방법					○			
과학의 본성과 역사					○			
과학영재 탐구지도					○			
과학영재 교재개발 및 교수					○			
과학영재 교육세미나					○			
영재교육연구법/통계	○	○	○	○		○	○	○
영재아 사례 연구	○	○	○	○		○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	○			○	○		○
영재 교사 및 부모 교육	○							
비교 영재교육	○							
영재교육의 최근 동향	○							
세계화 시대의 영재교육	○							
원격/사이버 영재교육		○				○	○	○
개인연구	○				○	○		
교육실습		○	○		○	○	○	○
현장연구/논문지도			○			○	○	

III. 미국의 CEC-NAGC 표준에 비추어본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교육과정 분석

미국 특수학생협의회(Council for Exceptional Children)와 미국 영재학생 연합회(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는 합동으로 10개의 항목을 만들어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고려해야 할 지식과 기능을 표준으로 제시하였다. 이 표준들과 핵심 내용을 간추려 정리하면 <표 2>와 같다(Roberts, 2008, p.258-261)

<표 2> 미국 CEC-NAGC 표준의 내용

표준	핵심 내용
① 영재교육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관련 국가, 주, 지역의 법령 • 영재의 정의와 판별 • 영재교육의 역사적 기초, 철학, 이론, 모델 • 영재교육의 사회적, 문화적, 경제적 요인 • 영재교육의 이슈 및 경향
② 영재성의 발달 및 영재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인지적, 정의적 특징 • 영재성 발달에 미치는 문화적, 환경적 영향 • 영재성 발달을 위한 가정과 지역 사회의 역할 • 영재성 발달의 이정표적 특징 • 영재들의 공통점과 차이점
③ 영재들의 학습 양식의 개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다양성이 가지는 영향 • 장애 영재 • 학습 양식의 차이 • 신념, 전통, 가치의 다양성 •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점
④ 영재 교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자원 확인하기 • 영재 교수 전략 기술하기 • 내용 영역에 대한 교수적 지식 응용 • 교수법 연구 • 영재들의 학습 양식의 진단과 교수법 적용 • 영재 교수 전략 • 다문화적 교육과정 개발 • 정보 기술과 기자재 활용

<p>⑤ 영재들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정 관념(stereotypes)의 분석 • 영재들의 사회적, 정서적 발달 • 영재들의 정의적 학습 경험 • 영재들의 평생 학습 경험 발달 • 영재들의 개별학습과 집단 학습 • 영재들의 언어적, 문화적 차이 이해 • 영재들의 사회적 상호 작용과 대응 기술
<p>⑥ 영재들의 언어와 의사소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사소통 • 의사소통에 미치는 다양성의 영향 • 영재들의 예외적인 의사소통 요구 • 영재들의 가족과의 의사소통 • advanced 의사소통 도구
<p>⑦ 교수 계획</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과정의 이론 및 연구 모델 • 일반교육과정과 차별화된 교육과정의 차이 • 영재들을 위한 인지적, 정의적, 미적, 사회적 교육과정 개발 • 영재교육과정과 국가 교육과정 표준과의 조화 • 영재들을 위한 학습 계획 설계 • 영재교육과정의 범위와 계열 개발하기 • 영재교수를 위한 자원, 전략, 결과를 선택하기 • 영재들을 위한 고등수준의 교육 내용 선정하기 • 영재들의 학업과 직업 가이드스 통합
<p>⑧ 평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과정 평가 • 영재 판별 도구의 사용, 한계, 해석에 대한 이해 • 영재 판별에서의 평등성 • 영재들에게 적절한 평가 기술 • 차별화된 교육과정 기반 평가
<p>⑨ 전문적·윤리적 교직 실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성(reflection) • 영재교육 관련 전문 조직 및 출판물 • 영재교육 관련 법령, 윤리, 표준 • 영재교육의 실천 개선
<p>⑩ 협력</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화적으로 민감한 협력 • 영재 가족의 관심사에 대한 반응 • 영재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협력 • 영재교육 지원 세력 구축 • 영재교육에 대한 가족, 지역사회, 학교 인사들과의 협력

이 미국의 CEC-NAGC 표준을 한국의 대학들이 대학원에서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 전공들이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표준 및 그 하위 핵심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목/주제명들을 배치, 열거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3> 미국 CEC-NAGC 표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전공 교과목/주제명

표준	D대	K대	S대	CC대	CJ대	IC대	KR대	KW대
영재교육의 기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의 최근 동향 세계화 시대의 영재교육 비교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학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개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육개론
영재성의 발달 및 영재의 특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 심리학 지능과 영재교육 창의성과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심리적 발달특징 창의성과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아 발달이론 현대지능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심리 창의성과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과 영재교육 영재아 사회/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과 영재교육
영재들의 학습 양식의 개인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영재교육 유아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수영재교육 	
영재 교수 전략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 심리검사 전교심화 학습모형 영재교육/심리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 및 평가 영재교육/심리 세미나 원격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영재판별법 영재교육/심리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 영재교육/심리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영재판별 및 평가 과학영재교육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아의 특성과 판별 영재교육 세미나 사이버영재교육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 원격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판별 및 발달특성 사이버영재교육 영재교육세미나
영재들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 심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의 심리적 발달특징 	

영재들의 언어와 사소통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영재 상담의 이론과 실제		영재 상담	영재 상담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교수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 교육 사고력 교육 영재 교육과정 영재교수법/자료 개발 수학영재 교육 과학영재 교육 예체능영재교육 컴퓨터/정보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고력 교육 영재 교육 과정 영재교수법/자료 개발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인문사회영재교육 예체능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창의성 교육 사고력 교육 초등영재 교육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인문사회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초등영재 교육 과정론 영재교수법 및 자료 개발 수학영재교육론/교재개발 과학영재교육론/교재개발 인문사회영재교육론/교재개발 예체능영재교육론/교재개발 정보영재교육론/교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학영재교육 구방법 과학의 본성과 역사 과학영재 탐구지도 과학영재 교재 개발 및 교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영재교수/학습 및 평가 수학영재교육론 과학영재교육론 예술영재교육론 인문/사회/언어영재교육론 상위 사고력의 이해와 발달 창의적 문제해결 및 발견 문제해결 교수의 이론과 실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 교육과정 수학, 국어, 영어, 음악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수학, 국어, 영어, 음악 영재교육론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재 교육 프로그램 사고력 이론과 실제 영재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수법 수학영재교육 과학영재교육 예술영재교육 인문/사회영재교육 언어영재교육
평가	영재교육 평가	영재교육 평가				영재교수/학습 및 평가	영재교육 평가	영재교육 평가
전문적·윤리적·직 실천	영재교육 행정/경영	영재교육 행정/경영	영재교육 실습		영재교육 행정/학급 운영	영재교육 실습	영재교육 실습	영재교육 행정/경영
협력	영재교사 및 부모교육							

위 <표 3>을 ‘한국의 8개 대학 대학원 영재교육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들은 미국의 표준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첫째, 각 대학은 미국의 표준을 만족시키는 정도에 있어 서로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D대학의 경우는 10개의 표준을 만족시키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 배정하고 있는 반면에, 나머지 7개 대학들의 경우는 1개에서 6개까지의 표준에 해당하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을 하나도 배치시키지 못하고 있다. 둘째, 각 대학이 잘 만족시키는 표준들과 그렇지 못한 표준들은 분명히 드러나고 있다. 8개 대학 모두가 가장 잘 만족시키는 표준은 “영재교수 전략”과 “교수 계획” 영역이었고, 그 외 “영재교육의 기초”, “영재성의 발달 및 영재의 특징”, “영재들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 “영재들의 언어와 의사소통”, “전문적·윤리적 교직 실천” 영역에서도 하나 이상의 교과목을 배치하고 있었다. 그러나 “평가” 영역에는 3개의 대학이, “협력” 영역에는 7개 대학이 한 과목도 배치하지 못하고 있다. 셋째, 각 표준들을 만족시키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의 수도 대학마다 달랐다. 예를 들어, 7개 대학이 “영재들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 영역의 경우, 영재의 발달 심리학 한 과목을, 그리고 “영재들의 언어와 의사소통” 표준의 경우, 영재 상담 및 진로 지도 한 과목을 동일하게 배치하였으나, “교수 계획” 표준의 경우, 적게 배치한 대학의 4개에서 많게 배치한 대학의 9개로 서로 달랐다.

IV. 유럽의 ECHA 표준에 비추어본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교육과정 분석

유럽영재협의회(European Council for High Ability)는 5개의 내용 영역에 표준을 만들어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포함하도록 하였는데(Mönks, Heller, & Passow, 2000), 이 5개 표준들과 핵심내용은 <표 4>와 같다(<http://www.bistric.com/ECHA%20diploma.htm>).

<표 4> 유럽의 ECHA 표준의 내용

표준	핵심 내용
① 영재성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간발달의 기본 개념 • 인간 지능의 성격과 개념 • 창의성 이론 • 영재성 이론과 모델 • 영재들의 인지적, 정의적, 사회적 특징
② 영재의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재 판별 과정의 기본 사항들 • 의사 결정 과정으로서의 판별 • 판별 도구들 • 모델 • 판별의 실제 사례 연구
③ 영재 교수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속진과 심화 • 교육과정 계획과 개발 • 영재들의 학습 환경 • 영재들을 위한 내용, 과정, 결과의 수정 • 능력별 집단 구성 • 영재들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영재교육 기관과 프로그램 분석 • 내용 영역에서의 교육과정 개발
④ 영재교육 관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와 가족 • 영재의 사회적, 정서적 요구 • 특별한 영재 집단: 소수민족 영재, 여성 영재, 미성취 영재 • 기타
⑤ 방법론적 토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연구 패러다임에 대한 기본 지식 • 교육심리학적 연구의 과정 • 측정과 평가의 기본 사항 • 프로그램 평가 • 과학적 연구 방법론 • 소규모의 경험적 연구 프로젝트 수행

이 유럽의 ECHA 표준을 한국의 대학원들이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 전공들이 어떻게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제시되고 있는 표준 및 그 하위 핵심 내용들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되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들을 배치, 열거한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유럽 ECHA 표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전공 교과목/주제명

표준	D대	K대	S대	CC대	CJ대	IC대	KR대	KW대
영재성의 개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능과 영재교육 · 영재의 발달심리 · 창의성과 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개론 ·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 창의성과 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학 개론 · 현대지능 이론 영재 교육 · 영재아 발달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 창의성과 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개론 · 영재의 발달 및 영재상당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론 · 창의성과 영재 교육 · 영재아 사회/정서 발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개론 · 영재의 심리적 발달 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개론 · 창의성과 영재 교육
영재의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 심리검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방법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영재 판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특성 이해와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판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판별 및 발달 특성
영재교육 과정 모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과정 · 창의성 교육의 실제 · 사고력 교육 · 영재교육법/자료개발 · 전교심화 학습 모형 · 비교영재 교육 · 영재교육 최근 동향 · 세계화 시대의 영재교육 · 유아영재 교육 · 수학영재 교육 · 과학영재 교육 · 예/체능 영재교육 · 컴퓨터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과정 · 사고력 교육 · 영재교재 개발 및 교수법 · 영재교육 평가 · 수학영재 교육 · 과학영재 교육 · 인문/사회 영재 교육 · 예/체능 영재교육 · 원격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과정론 · 창의성 교육 · 사고력 교육 · 수학/과학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 인문/사회 영재 교육 프로그램 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등영재 교육 과정론 · 영재 교재개발 및 교수법 · 수학영재 교육론/교재개발 · 과학영재 교육론/교재개발 · 인문/사회 영재 교육론/교재개발 · 예/체능 영재 교육론/교재개발 · 정보 영재교육론/교재개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 판별 및 평가 · 과학의 본성과 과학 역사 · 과학영재 탐구지도 · 과학 영재교재 개발 및 교수법 · 과학 영재교육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과과정 및 교재 개발 · 과학의 학습 및 평가 · 수학영재 교육론 · 과학영재 교육론 · 예술영재 교육론 · 인문/사회 영재 교육론 · 문제중심 학습의 이론과 실제 · 사이버영재교육 방법론 · 문제 중심 학습 이론과 실제 · 상위사고력의 이해와 발달 · 창의적 문제 해결 및 발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과정 · 원격영재 교육 · 수학/국어/영어/음악 영재를 위한 교재 개발 및 교수법 · 수학/국어/영어/음악 영재 교육론 및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프로그램 · 영재 교육 평가 · 사고력의 이론과 실제 · 영재 교재 개발 및 교수법 · 수학/과학/예술/인문사회언어 영재 교육 · 사이버 영재 교육

영재교육 관련 이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상담 및 진로지도 • 영재교육 연구/ 심리 세미나 • 특수영재 교육 • 영재교육 행정/ 경영 연구 • 영재교사 및 부모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상담 및 심리지도 • 영재 교육 세미나 • 특수영재 교육 •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상담 의 이론 과 실제 • 영재교육 / 심리세미나 • 특수영재 지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세미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의 발달 및 영재상담 • 영재교육 행정 및 영재 학급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아 상담 • 영재 교육세미나 • 영재교육 행정 및 경영 연구 • 특수 영재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상담 및 진로 지도 • 특수영재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상담 및 진로지도 • 영재 교육세미나 • 영재 교육 행정 및 경영
방법 적 토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통계 • 개별연구 • 영재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연구 방법 1,2 • 영재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연구 방법 론 • 현장연구 • 논문지도 1,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연구 방법 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학영재 교육 연구 방법 • 개인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교육 연구방법 • 영재교육 통계특강 • 영재아 사례연구 • 영재교육 개별 연구 • 연구설계 / 연구 계획서 작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논문 지도 I,II • 영재교육 연구 방법 론 I, II • 영재교육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재 교육 연구 방법 • 영재 교육 평가

위 <표 5>를 ‘한국의 8개 대학 대학원 영재교육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들은 유럽의 표준을 어떻게 만족시키는가?’라는 질문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미국 표준과 비교했을 때와는 사뭇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8개 대학 모두가 유럽의 5개 표준 각각에 해당하는 과목을 적어도 하나 이상씩을 배치시키고 있어 유럽 표준의 경우에는 거의 다 만족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둘째, 8개 대학이 만족시키는 표준들과 그렇지 못한 표준들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 않다는 것도 미국 표준에 비교했을 때와는 다르다. 셋째, 미국 표준에 비교했을 때는 각 표준들을 만족시키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의 수도 대학마다 달랐으나, 유럽 표준에 비교했을 때는 각 표준에 배치한 교과목의 수가 상호 비슷하였다. 이렇게 미국 표준에 비해 유럽 표준에 기초한 비교가 다르게 나온 이유는 미국의 표준은 10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유럽의 표준은 보다 적은 5개 항목으로 구성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보인다.

V.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한국 8개 대학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교육과정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들이 미국과 유럽이 대학원 수준에서의 영재교육전문가 양성 표준을 만족시킬 만큼 외양적으로 진용을 잘 갖추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다음 두 가지의 주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한국 8개 대학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에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들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미국과 유럽 표준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영역들을 만족시키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과 유럽 표준은 상호 간에 공통적인 영역을 지니고 있는데, 그것은 주로 “영재성의 개념 및 발달”, “영재교육과정 개발”, “영재 교수법” 영역이다. 따라서 이 영역들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이 모두 영재교육 전공의 세부 교육과정에서 핵심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런데, 위 8개 대학이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들은 대부분 이 영역에 대한 것들로 나타났다. 특히, “영재교수법” 영역에는 대부분의 대학들이 제일 많이 과목들을 배치하고 있었다. 이런 현상은 한국의 위 8개 대학 대학원 영재교육과정 대부분은 이 미국과 유럽이 핵심적으로 보고 있는 표준들을 만족시키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둘째, 각 대학은 미국과 유럽의 표준들을 만족시키는데 있어 정도의 차이가 있어, 양성되는 한국의 영재교육 전문가들의 질을 고르게 담보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다. 이 결론은 우선 각 대학마다 이 영역들에 배치하고 있는 교과목 또는 주제명의 수에 있어서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지지될 수 있다. 각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교과목의 수는 적은 학교는 12개, 많은 학교는 27개로서 배의 차이라고 할 정도 크다. 아울러, 미국과 유럽의 여러 표준들 중, 각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는 교과목의 수도 차이가 많이 난다. 예를 들어, 유럽 표준 중 “영재교수모델”의 경우, 5개의 과목을 배치한 대학과 13개의 과목을 배치한 대학이 있는데, 이 두 대학이 이 표준의 8개 하위 표준들을 동등하게 만족시킬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분명히 과

목 5개보다는 13개를 포진시킨 대학이 “영재교수모델”의 8개 하위 표준들을 좀 더 잘 만족시킬 체제를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두 가지 결론은 한국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교육과정의 발전을 위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한다.

첫째, 앞으로 한국에서 대학원 수준의 영재교육 전문가 양성의 질적 관리를 위해서는 미국과 유럽의 표준을 통합한 표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 미국과 유럽의 표준은 앞에서 언급 한 바 상호 간에 주요 영역으로 보는 표준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지만 차이점도 있다. 미국의 표준 중 유럽의 표준에는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전문적·윤리적 교직 실천” 중 영재교육실습 영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8개 대학 중 5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실습은 미국 표준만을 만족시킨다. 반대로 유럽의 표준 중 미국 표준에는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방법론적 토픽” 영역이다. 이에 따라, 한국의 8개 대학 모두가 개설하고 있는 영재교육연구법과 관련한 과목들은 유럽 표준만을 만족시킨다. 그러나 미국의 “전문적·윤리적 교직 실천” 영역이나 유럽의 “방법론적 토픽” 영역 모두는 영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중요한 영역이다. 따라서, 한국에서 앞으로 대학원 영재교육 전공 표준을 만들 경우에는 미국과 유럽의 표준을 통합하는 표준을 만들고, 이 두 영역이 다 포함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둘째, 표준은 영재교육의 영역별로 세분화되어 영재교육학과 영재교과교육학 표준이 별도로 개발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비교의 준거로 제시된 미국과 유럽의 표준은 영재교육학 영역의 표준이고, 비교 대학으로 설정한 한국의 8개 대학 중 7개 대학의 대학원 영재교육 전문가 과정은 모두 교육학 영역에서 개설하고 있고, 1개 대학(CJ대)만 교과교육 영역에서 초등과학영재교육 전공으로 개설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 7개 대학 대학원 영재교육 전문가 과정의 교육과정을 이 두 표준에 비추어 분석한 것은 적절하다. 그러나, 초등과학영재교육 전공을 개설하고 있는 CJ 대학의 교육과정은 이 영재교육학에서의 전문가 양성 표준에 비추어 분석하는 경우는 다소 어색한 측면이 있다. 이에 따라, 교과 내용 영역에서의 깊은 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교과 영역에서의 영재교육 전문가들을 위해서는 (Tannenbaum, 1983; Karnes & Parker, 1983; Croft, 2003), 별도의 표준이 개

발될 필요가 있는데, Daring-Hammond & Bransford(2005)의 교사교육 표준이 참고의 한 예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3가지 교사교육 표준을 학습자에 대한 지식(학습의 원리, 인간 발달의 원리, 언어와 사회적 맥락), 교육과정에 대한 지식(교육의 목표, 교과목표/내용/기능에 대한 이해), 교수에 대한 지식(교과교수법, 수준별 교수법, 평가의 방법, 학급경영)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교사교육 학자들이 제시하는 3가지 영역인 교육학, 교과내용학, 교과교육학에 대한 지식 표준과도 일치한다.

셋째, 각 표준의 하위 영역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하위 영역별 교재 개발과 그에 따른 모듈(module) 식의 학점 개념 도입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어느 하나 또는 두 개의 과목으로는 해당하는 표준의 여러 하위 영역들을 다 만족시키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미국 표준 중 “영재들의 학습 양식의 개인차”는 하위 영역으로 5개의 하위 표준을 지니고 있는데, 5개 대학이 개설하고 있는 “특수영재” 과목 하나로는 “장애영재”라는 하위 영역 하나만 만족시킬 뿐, 나머지 4개 하위 영역들은(영재의 다양성이 가지는 영향, 학습 양식의 차이, 신념과 전통 및 가치의 다양성, 다양한 집단에 대한 관점) 만족시키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런 문제는 하위 영역을 많이 가지고 있는 표준들, 예를 들어, “영재교수 전략”이나 “영재들의 학습 환경과 사회적 상호작용”과 같은 표준들의 경우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교재 개발이 하위 영역별로 이루어져 제공되어야만 표준들을 실질적으로 만족시킬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각 표준을 하나의 모듈로 보고 각 표준의 하위 영역들을 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정한 후 총 합산하여 학점화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영재교육의 기초” 표준은 5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 이 표준을 하나의 모듈로 보고 각 하위 영역을 이수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9시간씩 배당한다면 총 45시간이 되며, 이 시간은 3학점에 해당된다(주당 3시간 × 15주 = 45시간). 그리고 “영재교수전략” 표준은 8개의 하위 영역을 가지고 있고 또 각 하위 영역별로 중요한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이 하위 영역들을 이수하는데 걸리는 총 시간을 90시간 배정한다면 6학점에 해당된다. 이런 하위 영역별 교재 개발 및 표준과 하위 영역 중심의 모듈식 코스 운영은 각 표준을 만족시키고 미국과 유럽 수준의 질 높은 영재교육 전문가를 양성하는데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한국에서 대학원 수준의 과정을 이수하고 배출되는 영재교육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은 미국과 유럽과 같은 선진국 수준의 표준을 만족시킬 수 있을 정도로 교과목 개설 체제를 갖추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그 결과, 조사한 8개 대학은 이 교과목 개설의 외양적 진용에 있어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영재교육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추정하는데 있어서는 한계가 있다. 개설된 과목과 실제로 운영되는 과목이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같은 과목이라도 다루는 교재 내용의 폭과 깊이가 대학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이런 측면들까지 조사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각 대학에서 배출되는 영재교육전문가들의 질적 수준의 차이를 추정하는 데에 한계가 있다. 앞으로 실제로 운영되는 과목 조사, 사용되는 교재의 내용 분석, 과목 담당 교수들과 수강생, 학교 현장에서의 영재교육 관계자(stakeholder)들을 대상으로 한 의견 조사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추후 연구가 계속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참 고 문 헌

- 대구대학교 홈페이지. <http://edugrad.daegu.ac.kr/>(검색일: 2008. 12. 17)
- 건국대학교 홈페이지. http://sedu.konkuk.ac.kr/2008n/curri/curri3_1_6.htm(검색일: 2008. 12. 17).
- 순천향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sch.ac.kr/gradu/index.jsp?menuID=20071010104424690292>(검색일: 2008. 12. 17)
- 춘천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sukwoo2.cnue.ac.kr/graduate/sub02_1803.htm(검색일: 2008. 12. 17)
- 청주교육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cje.ac.kr/cjg/>(검색일: 2008. 12. 17)
- 유럽영재교육협의회 홈페이지. <http://www.bistric.com/ECHA%20diploma.htm>(검색일: 2008. 12. 17)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 <http://dept.incheon.ac.kr/eduwon/course.htm>(검색일: 2008. 12. 17)
- 고려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orea.ac.kr/edugrad_jsp/(검색일: 2008. 12. 17)
- 경원대학교 홈페이지. <http://www.kyungwon.ac.kr/kusc/>(검색일: 2008. 12. 17)
- Croft, L.J. (2003). Teachers of the gifted: Gifted teachers. In N. Colangelo & G.A. Davis(Eds.), *Handbook of gifted education*(pp. 558-571). Boston: Allyn & Bacon.
- Dettmer, P. & Landrum, M. (1998, Eds.). *Staff development: The key to effective gifted education programs*. Washington, D.C.: National Association for Gifted Children.

- Graffam, B. (2006). A case study of teachers of gifted learners: Moving from prescribed practice to described practitioners. *Gifted Child Quarterly*, 50(2). 119-131.
- Gross, M. (1997). Changing teacher attitudes toward gifted children: An early and essential step. In J. Chann, R. Li, & J. Spinks(Eds.), *Maximizing potential: Lengthening and strengthening out stride*(pp.3-22). Proceedings of the 11th World Conference on Gifted and Talented Children.
- Hansen, J.B., & Feldhusen, J.F. (1994). Comparison of trained and untrained teachers of gif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3). 115-123.
- Karnes, F., & Parker, J. (1983). Teacher certification in gifted education: the state and art and considerations for the future. *Roeper Review*, September. 18-21.
- Mönks, F.J., Heller, K.A., & Passow, A.H. (2000). The study of giftedness: Reflections on where we are and where we are going. In K.A. Heller, F.J. Mönks, R.J. Sternberg, & R.F. Subotni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pp. 839-863). NY: ELSEVIER.
- Moon, S.M., & Rosselli, H.C. (2000). Developing gifted program. In K.A. Heller, F.J. Mönks, R.J. Sternberg, & R.F. Subotnik(eds.), *International handbook of giftedness and talent*(pp. 499-522). NY: ELSEVIER.
- Nelson, J., & Cleland, D. (1971). The role of the teacher of gifted and creative children. In P. Witty(Ed.), *Reading for the gifted and creative student*(pp.431-458). Newark, DE: International Reading Association.
- Parker, J.P., & Karners, F.A. (1991). Graduate degree programs and resource centers in gifted education: An update and analysis. *Gifted Child Quarterly*, 35(1). 43-44.
- Reis, A., & Westberg, K. (1994). The impact of staff development on teachers' ability to modify curriculum for gifted and talented students. *Gifted Child Quarterly*, 38(3). 127-135.
- Roberts, J.L. (2008). Teachers of the gifted and talented. In F.A. Karnes & K.R. Stephens(Eds.), *Achieving excellence: Educating the gifted and talented*(pp.246-261). Upper Saddle River, NJ: Pearson Education, Inc.
- Tannenbaum, A.J. (1983). *Gifted children: Psychological and educational perspectives*. NY: MacMillan.
- Wellisch, M. (1997). A pilot study: Teachers' view on the concept of giftedness in the early childhood setting. *Australian Journal of Early Childhood*, 22(2). 22-28.
- Whitton, D. (1997). Regular classroom practices with gifted students in grades 3 and 4 in New South Wales, Australia. *Gifted Education International*, 12(1). 34-38.

= Abstract =

**An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of the Graduate
Degree Programs for the Professionals of the
Gifted/Talented Education**

- An Analysis of Korean Graduate Program in Comparison with
the Standards of America and Europe -

Kang, Choongyoul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One of the main factors that affect the improvement of G/T education is the number and the level of quality of the professionals who are working for the gifted. The professionals vary depending on the role they play for the gifted from the classroom teacher, coordinator, to consultant. Since the legislation of the law for the enhancement of the gifted education in Korea, the in-service training for the classroom teacher has been expanded in number throughout the country. Nowadays, the gifted education is about to be expanded into the general school population, and it becomes more necessary that the training at the level of university graduate program be expanded beyond the short-term in-service training so far.

In this vein, the number of universities in Korea that offer the staff development for the gifted education at the graduate level has been increased. However, the problem is whether those programs meet the need to produce the quality professionals. Based on this problem awareness, the study analyzed the graduate programs of 8 universities in Korea by comparing their course descriptions with the graduate-level training program standards of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It was found that most of the universities fulfilled the areas that both standards commonly consider import, such as “concept and development of giftedness”, “curriculum development for the gifted”, “teaching methods

for the gifted.” However, the number of the offered subjects was different among the universities, which indicates that it is suspicious that the universities equally satisfy the areas both standards require. Furthermore, it was also found that the universities differ in satisfying the other standards. From these findings, several suggestions were made for the improvement of the university graduate programs in Korea.

Key Words: Professionals for G/T education, Graduate program for G/T education

1차 원고접수: 2008년 11월 3일
수정원고접수: 2008년 12월 13일
최종게재결정: 2008년 12월 22일